

보도시점 2025. 10. 27.(월) 09:35 배포 2025. 10. 27.(월) 08:0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27일(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부총리 개회사(영문)

참고 2. 부총리 개회사(비공식 번역본)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yu1019@korea.kr)

※ 보도참고용으로 배포하는 자료로, 실제 발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 회 사

2025. 10. 27.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 윤 철

1 인사 말씀

Buenos Dias!

Welcome to the 7th Korea-LAC Business Summit.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with us
IDB President Ilan Goldfign,
Minister Aubyn Hill of Jamaica,
Minister Victor Ventura of Guatemala
and distinguished government and business leaders
from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Korea.

I also extend my gratitude to
KOTRA CEO 강경성 and KEXIM Bank staff
for their supports in organizing this important event,
and to all the Korean business leaders here today.

2 그간의 협력 성과

Distinguished guests,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Korea's membership in IDB.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 and the LAC region have grown
from distant friends to trusted partners,
sharing knowledge, technology
and a vision for inclusive growth.

Through the IDB,
Korea has contributed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ical expertise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They have supported
millions of households across the region
with cleaner water, more reliable energy,
and better transportation.

Korean businesses, in turn,
have found new opportunities
in infrastructure, energy, and digital sectors.

And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work of the IDB staff, including 40 Korean professionals serving as bridges between our two regions.

Beyond the cooperation with the IDB, Korea has also deepened trade with the LAC region.

Starting with the FTA with Chile in 2004, Korea expanded its FTA partnerships to Peru in 2011, Colombia in 2016, and five Central America in 2019.

Just last month, we signed 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with Ecuador.

As a result, over the last 20 years, our trade has tripled, and Korea's investment in the LAC region has grown more than fifteenfold.

3 향후 협력 방향

Ladies and gentlemen,

As we look ahead,
we must respond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slowdowns in trade
and rapid technological shifts.

In Latin America, there's a saying:
"En la necesidad se conoce al amigo."

-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Now is the time for Korea and the LAC region
to deepen our strategic partnership.

Allow me to suggest three areas
for future cooperation:

First, accelerating AI transformation.

Today, Korea is directing its policy efforts toward
an AI-driven transformation
across the economy and society.

By combining Korea's deep-tech capabilities
with the LAC region's strong digital potential,
we can create powerful synergies for innovation.

Second, strengthening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The LAC region holds
about 30% of the global reserves,
and Korea is a leader
in EVs,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By working together, we can build
secure and sustainable value chains.

Third, expanding energy infrastructure.

With LAC's abundant clean energy resources
and Korea's proven expertise,
we can jointly contribute to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To realize these goals,
Korea is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IDB.

We will establish IDB AI Hub in Korea
to scale financing and innovation in AI sector.

Also, we will discuss new financing mechanism
to support digital, critical mineral and energy projects
across the LAC region.

We will also continue to support
private sector development
through IDB Invest and IDB LAB.

4 맺음말

Distinguished guests,

As we celebrate 20 years of partnership,
we now look ahead to the next 20 years..

*Corea seguirá caminando de la mano del BID,
avanzando juntos hacia un mundo mejor.*

- Korea will walk hand in hand with the IDB,
advancing together
toward a better world.

Let us continue this journey together
for shared prosperity, for innovation,
and for a brighter future.

Muchas gracias.

Thank you.

1 인사 말씀

Buenos Dias! 안녕하십니까.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님,
오번 힐 자메이카 산업투자상무부 장관님,
빅토르 벤뚜라 과테말라 에너지·광물부 장관님,
그리고 중남미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여러분,

지구 반바퀴를 돌아 대한민국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많은 도움 주신
강경성 코트라 사장님,
수출입은행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 그간의 협력 성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 서 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웃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IDB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원한 사업으로

400만 가구가 넘는 중남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리한 교통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으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IDB와의 협력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중남미·카리브 지역 발전에 공유되어,
양측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IDB 본부와 각국 현장에서
40여명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양 지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도
중남미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 2016년 콜롬비아,
그리고 2019년 중미 5개국¹⁾까지
FTA를 확대했으며,
지난 9월에는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²⁾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로
지난 20년간 한-중남미의 교역규모는 3배,
투자는 15배 이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³⁾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발전 속도입니다.

1) 페루(2011), 콜롬비아(2016),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2019)

2)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기존 관세 혜택 중심의 FTA에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협정('25.9.2일 체결)

3) 한-중남미 교역규모(억불, 무역협회) : ('04) 183 → ('24) 567
한국의 對중남미 직접투자액(억불, 수은) : ('04) 6.12 → ('24) 95.51

3 향후 협력 방향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세계적인 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기술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중남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n la necesidad se conoce al amigo”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남미의 파트너십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한-중남미 경제협력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AI 기술 활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딥테크 기술 경쟁력과
중남미의 높은 디지털 친화력⁴⁾이 함께 한다면
글로벌 AI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입니다.

중남미는 전세계 핵심광물의 30%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전기차 · 배터리 · 반도체 등
첨단 제조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셋째, 에너지 인프라 확대 입니다.

중남미는 전체 전기 공급의 60%가
청정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풍부한 청정에너지 발전여건을 보유한 중남미와
우수한 플랜트, 인프라 건설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4) SNS 사용이 전 세계에서 제일 활발한 지역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남미를 '세계 SNS'의 수도라고 칭함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IDB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에 IDB AI 협력사무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AI 거점(Hub)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협력을 통해
디지털,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IDB Invest와 IDB Lab을 통한
중남미 민간부문 개발도 지속하겠습니다.

4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20년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Corea seguira caminando de la mano del BID,
avanzando juntos hacia un mundo mejor.

앞으로도 한국은 IDB와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